



캠퍼스별 특화전략으로 도약하는 부산대학교

부산대가 국립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며 글로벌 명문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특히 부산-양산-밀양으로 이어지는 캠퍼스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는 특화발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멀티캠퍼스 구축, 캠퍼스별 특성화

부산대학교는 최근 수년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부산캠퍼스, 양산캠퍼스, 밀양캠퍼스, 아미캠퍼스 등을 특화·발전시키는 멀티캠퍼스 체제를 구축했다. 규모나 수적 우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췄다. 각 캠퍼스는 본교-분교의 개념을 넘어 특성화 분야별로 활성화된 것이 특징이다. 캠퍼스별 특성화와 학문 영역별 기능의 연계에 역점을 둔 캠퍼스 벨트로 대학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부산캠퍼스는 인문·사회·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

의 학문이 만나고 전통과 역사를 지닌 캠퍼스로서 종합 연구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다. 양산캠퍼스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생명 분야를 집적시킨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의료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밀양캠퍼스는 지난 2006년 밀양대학교와의 통합으로 확보한 캠퍼스로서 미래 유망 학문인 나노·바이오 특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아미캠퍼스는 재개발을 통해 국립암센터를 완공했고 외상전문질환센터 등을 추가 건립함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도시형 메디컬센터로 거듭난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변화 중의 하나가 양산캠퍼스를 세계적인 의생명과학 분야 특화 캠퍼스로 만드는 대역사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한 양산캠퍼스 건립사업이 1단계 결실을 맺고 2008학년도부터 의학계열의 양산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대지면적 1,120,806㎡ 규모인 양산캠퍼스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지진모사실험동, 기숙사(행림관) 등이 들

어섰고, 병원단지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이 건립되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2009년 말 치과병원, 2010년에 한방병원, 전문질환센터 그리고 2011년에는 재활병원이 순차적으로 개원한다. 이로써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는 국내 유일·최대의 종합의료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기록적인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부산대는 김인세 총장이 취임한 2003년 9월부터 6년간 부산캠퍼스에 성학관, 인문대교수연구동, 음악관 등 14개 건물과 양산과 밀양캠퍼스에 11개동 등 총 25개의 건물을 새로 세웠다. 현재 건설관, 한방병원 등 13개 건물이 건립 중이다. 한국 근대 건축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인문관 등 5개 건물의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3개동은 진행 중이다. 조각공원 및 소공원 조성, 미리내골 환경 개선 등 친환경적인 그린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노력도 함께 했다.

이러한 교육·연구 시설 확충은 가히 기록적이다. 지난 6년간 건설한 공간의 총 면적은 543,012㎡에 이르며, 이는 부산대학교 개교 이후 2003년까지 57년간 확보된 공간보다 더 큰 규모다. 그리고 대학의 전 강의실을 e-러닝이 가능한 첨단강의실로 바꾸는 등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확충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연구역량 크게 향상, 각종 평가에서 대약진

부산대는 교육·연구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과 아울

러 교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연구 역량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특히 각종 평가에서 세계 우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부산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부산대는 강력한 연구진흥책을 펼쳐 2009년 10월 발표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와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공동 주관의 '2009 세계대학평가'에서 수직상승을 이루며 국내 종합대 6위로서 세계 371위에 랭크되었다. 이 같은 세계대학 순위는 지난해 511위에서 140계단 급상승한 것이며 국내 대학 중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의 학문분야별 순위에서 부산대는 공학·IT 230위, 생명공학·의학 154위, 자연과학 261위, 사회과학 275위 등을 기록하며 4개 분야에서 세계 300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생명공학·의학 분야는 200위 안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2008년에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서 부산대학교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총 논문 수 3위, SCI 논문 수 3위를 차지했으며 교원 1인당 SCI 논문 수는 종합대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발전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연구진흥책 도입을 통한 꾸준한 혁신과 교수들의 끊임없는 노력, 대학 당국의 대대적인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총장의 리더십 등이 어우러진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대의 우수 연구역량은 세계적인 연구그룹 및 기업들과의 국제 산학협력을 견인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동반 발전을 가능케 했다.

자립구조 확보 위한 제3의 수입구조 창출 노력

부산대는 2007년 5월 BTO방식의 민간투자를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하여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2009년 2월 준공함으로써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국비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예산확보 외 제3의 재정수입구조 창출을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최급한 과제이지만,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 여건으로는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부산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연구 개발했다. 효원문화회관 건설 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계획에만 머무르던 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체육관 신축,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해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했다. 효원문화회관에는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섰고,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 아트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다.

효원문화회관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투자하는 '민간투자방식(BTO)' 사업으로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시설 확충은 물론 향후 사업수익의 일정부분을 대학 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다. 이 같이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 발전

부산대는 대학과 산업체, 대학과 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만

들어 국제산학협력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 특성화, 차세대성장동력산업분야 특성화, 세계적 선진학문분야 특성화 등을 이끄는 국제산학협력 연구원을 개원했다.

부산대는 부품 소재 및 생산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IFAM 연구소(생산 기술 및 응용재료 연구소)와 공동으로 PNU-IFAM 국제공동연구소를, 독일 프라운호퍼 IDMT와는 PNU-IDMT 국제공동연구소를 부산캠퍼스에 유치하여 공동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밀양캠퍼스에는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IGB(계면 및 생물공학연구원)와 공동으로 PNU-IGB 국제공동연구소 개소하여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적 동력시스템 업체인 영국 롤스-로이스사와 공동기술연구를 추진해 '초효율 초경량 차세대 열교환기'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부산대에 아시아 최초로 롤스-로이스사의 대학기술연구센터(UTC: University Technology Centre)를 유치해 2008년 2월 오픈했다. 이 센터는 항공·해양선박·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연구센터는 그동안 유럽권에 포진해 있던 롤스-로이스의 기술연구센터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부산대학교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롤스-로이스 기술연구의 중심축의 하나가 될 부산대 기술연구센터에서는 열교환기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험, 제작기술 개발 등 다양한 과정의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영국 롤스-로이스 본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7년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선박기술 인증기관 중 하나인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설립한 로

이드교육재단과 실무 협약을 체결해 '선박 및 해양플랜트 혁신 구조설계 연구소'를 유지했다. 이 연구소는 현재 선박의 붕괴·침몰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선박을 대상으로 한 붕괴실험, 심해자원개발용 해양플랜트 설비의 폭발 위험도 해석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 활성화, 글로벌화 박차

부산대는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 30개국 190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하며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영국 옥스퍼드대학,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의 교류를 진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화 전략에 따라 선진 국제교류 시스템 구축, 외국인교수 획기적 확충, 학생 국제교환프로그램, 영어전용강의 복수전공프로그램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부산대는 대학 간의 형식적 교류보다 학문분야별 실질 교류에 주력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국제교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도입한 영어강의 전용 복수전공 프로그램인 '글로벌 스테디즈 프로그램'(GSP: Global Studies Program)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실용 능력과 국제 감각 배양에 일조하고 있다. GSP는 정치, 경제, 경영, 국제학, 법학, 철학 등 학과별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적인 커리큘럼과 토론과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해외 유학에 버금가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을 매년 초청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을

초청하고 있다. MP3 발명자 독일 브란덴부르크 교수를 비롯해 주로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초청되어 학생들은 물론 관련 분야 연구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적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 교류를 통한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글로벌 챌린지 1000'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해외체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1년에 적어도 1,000명에게 국제적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편 부산대는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우수 인재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를 대거 임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 현재 15명의 외국인 전임 교원이 있으며, 객원 교수 33명, 계약 교수 4명, 연구 교수 4명, 외래교수 1명 등 42명의 비전임 초빙 외국인 교원들도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학업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의 일대일 개인별 밀착지도를 받는 튜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는 등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지원 프로그램 대대적 확충

부산대는 학생들의 진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종합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력개발과 국제교류를 다양화함으로써 경쟁력 배가하는 한편 산학협력을 강화해 우수 학생들을 유망 기업체에 곧바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학기부터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Post-Up Academy'를 도입했다. 미취업 졸업생과 취업준비로 9학기 이상 등록하거나 휴학 중인 세칭 '대학 5학년'을 위한 직무별 맞춤형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경영·기획/인사/영업·마케팅/생산·품질관리/기타 분야별로 30명씩 총 150명을 대상으로 직무심화교육, 직무면접 클리닉 등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분야별로 대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또는 숙련된 커리어 컨설턴트를 강사진으로 초빙해 강의와 개인별 맞춤형 코칭을 진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한다. 매주 금요일을 'Job Clinic Day'로 정하고, 오전은 취업에 필요한 특강을, 오후는 분야별로 맞춤형 모의면접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대 / 학 / 연 / 혁

- 1945. 10. 부산대학교 설립기성회 조직
- 1946. 5. 국립부산대학 설립인가
- 1946. 9. 제1회 입학식
- 1952. 3. 제1회 학위수여식
- 1953. 9. 종합대학교 설치인가
- 1953. 11. 초대총장 윤인구 박사 취임
- 1954. 4. 대학원 개설
- 1956. 11.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설
- 1972. 3.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개교
- 1992. 4. (재)부산대학교발전기금 설립
- 1997. 11.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 2006. 3. 밀양대학교 통합
- 2007. 9. 제18대 총장 김인세 박사 취임(17, 18대 연임)
- 2008. 3. 국내 유일 한의학전문대학원 개원
- 2009. 2. 양산캠퍼스 준공
- 2009. 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
 부산대학교는 최근 수년간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부산캠퍼스, 양산캠퍼스, 밀양캠퍼스, 아미캠퍼스 등의 멀티캠퍼스 체제를 구축했다. 규모나 수적 우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
 ”

